

日本 正倉院의 袈裟와 그 製作國

Priest's Robes in the Shoso-in of Japan and their maker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教授 李 春 桂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 Lee, Choon Gye

〈목 차〉

- | | |
|----------------------|-----------------|
| I. 머릿말 | IV. 正倉院 袈裟의 製作國 |
| II. 「珍寶帳」의 袈裟와 현존 袈裟 | V. 맺는말 |
| III. 正倉院 袈裟의 특징 | 참고문헌 |

〈Abstract〉

Shoso-in in Nara of Japan has two kinds of Priest's robe(Kasa : 袈裟); one is Jiksung Kasa(織成袈裟), the other Janap Kasa(刺納袈裟). The former is listed as the "Jiksung Kasa of tree bark color in seven stripes" in the Treasures Record(珍寶帳) of objects dedicated by Empress Komyo on the 21st day of the 6th month 756 A. D.

The warp threads are brown and the weft threads are in groups of two in two colors—dark blue, green, yellow and red. The latter is the so called Janap Kasa, of tree bark colors in seven stripes, that was also dedicated by Empress Komyo, "Ja" means to stitch, and "Nap" means to sew. It is made of patches of silk of various color, placed overlapping one another in patterns the resemble a mountainous landscape. All are stitched together in a continuous quilt-like manner with purple threads.

Japan has been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Korea Buddhism during the Nara period. According to Nihonki(日本書紀) and Sokunihonki(續日本紀), from 668 to 769 A.D., Japan has bought numerous objects including Buddhist utensiles such as priest's robes and banners from Korea. Also during the same period Japan has purchased many kinds of dyestuffs and paint. So we can be certain that priest's robes were imported from Korea like many other objects of Shoso-in.

I. 머릿말

正倉院에 소장된 소장품(寶物)들을 기록한 「珍寶帳」(國家珍寶帳)에는 僧侶의 제일 禮裝이라고 할 수 있는 袈裟를 필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天皇 聖武와 王后인 光明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물품이라고 하겠다. 이 袈裟는 9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랜 시일을 지나오는 동안 曝涼·出藏·修理 등의 경과를 겪으면서 분실된 가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東大寺에 獻納된 물품명 기재장인 「獻物帳」(「國家珍寶帳」)의 袈裟와 現存 袈裟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현존가사의 특징을 展示圖를 중심으로 알아 보고자한다. 그리고 그러한 袈裟의 제작은 日本이 아니라 韓國일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작국에 대하여는 新羅佛敎와 奈良佛敎의 관계, 日本이 新羅 袈裟를 구입한 사실, 袈裟를 포함한 물품의 일본에서의 명칭과 용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正倉院의 幡旗나 刺繡 등은 문양이 뚜렷하므로 제작국의 확인이 문양비교의 시각에서 용이하지만 袈裟에는 문양이 없기 때문에 제작국 확인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II. 「珍寶帳」의 袈裟와 현존 袈裟

正倉院 소장품은 756년 왕후 光明이 東大寺의 大佛에 헌납한 물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때에 헌납한 600여종의 물품을 기록한 목록이 「珍寶帳」 또는 「國家珍寶帳」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珍寶帳」의 첫머리에 천황 聖武가 사용하던 9領의 袈裟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珍寶帳」의 600여종의 물품 가운데 日王 聖武의 袈裟가 제일 중요한 물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珍寶帳」기재의 9領의 袈裟 이외에도 正倉院에는 7領의 袈裟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7領의 袈裟는 17조~25조 가사로 대단히 크다. 17조가사의 크기는 길이 150cm, 폭 330cm

이고, 23조 袈裟는 길이 372cm에 폭 727cm이다.¹⁾ 이 7領의 가사는 출처와 제작시기 등이 불분명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珍寶帳」에 기재된 袈裟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國家珍寶帳」기재 袈裟

御袈裟合攷錄

九條刺納樹皮色袈裟一領 碧綾裏袷絹緣

七條褐色細袈裟一領 金剛智三藏袈裟

七條織成樹皮色袈裟一領 紺綾裏袷絹緣

七條刺納樹皮色袈裟六領 二領碧綾裏袷絹緣 二領紺絹裏袷絹緣

一領紺綾裏袷綾緣 一領紺紬裏袷綾緣

右納漆皮箱三合箱別納以別綾鞋袷

三領 箱亦納有緣蠟緹袋 惣納漆櫃一合着鏡

現存品

(九條刺納樹皮色袈裟一領)

(七條褐色羅袈裟一領)

七條織成樹皮色袈裟一領

七條刺納樹皮色袈裟六領

漆皮箱子 二合

御袈裟幪袷 三條

御袈裟袋 二口

* 上記「右納」의表記는 本文이 縦書き기 때문임.

위의 기록에 의하여 756년 당시는 天皇 聖武가 사용한 袈裟 9領을 수납할 때는 겹으로 만든 보자기(싸개) 1개마다에 가사 3령씩을 싸고 이것을 三合의 漆皮箱子에 分納하여 각각을 蠟緹 자루에 넣고 이들을 모두 漆櫃 1함에 넣어 다시 자물쇠로 채운 것을 알 수 있다. 1합의 漆皮箱子에 3領의 袈裟가 들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袈裟 이외에 기록된 겹보자기(幪 싸개)와 자루(袋) 그리고 漆皮箱子는 각각 3개

1) 井筒雅風, 「袈裟史」, 雄山閣, 1982, p.76.

씩이 있었으나 袋와 상자가 각 1개씩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袈裟와 보자기, 자루, 상자의 특징에 대하여는 다음의 2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七條褐色紬袈裟 1領은 본래 僧侶 金剛智三藏의 袈裟라는 기록이 있다. 日本 學者 중에는 金剛智三藏이 唐의 僧侶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당시의 新羅와 日本의 外交關係와 佛教關係,²⁾ 寺刹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일본이 新羅로부터 구입한 사실³⁾ 등의 視角에서 보아서도 그 僧侶는 唐나라 僧侶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統一新羅의 僧侶일 가능성이 보다 강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天皇 聖武가 新羅의 僧인 審祥의 說法에 心醉하여 東大寺를 창건한 天황이라면⁴⁾ 新羅僧이 입던 袈裟를 소중히 간직하고 愛用하였음을 당연시해야 할 것이다.

이 袈裟는 表裏 모두 汚染·損傷 없이 잘 보존되어 있는 綾紋의 羅로 보이는 가사이다(그림 5). 綾·안·縱橫의 袷(畦) 모두 赤褐色의 同一한 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獻物帳에 「紬」로 기록된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袈裟이나 異論도 있다. 즉 「獻物帳」 御袈裟 9령 가운데의 「七條褐色紬袈裟 1領 金剛智三藏袈裟」를 七條褐色羅袈裟 1령으로 보고 있으나 紬는 실마디가 있는 조잡한 絹絲로 平織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羅袈裟가 紬袈裟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는 잘못으로 보는 異論도 있다.⁵⁾

「珍寶帳」의 다른 물품에 비하면 가사는 많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쓰시마(松島順正)氏は 9령의 袈裟 중 七條褐色紬袈裟만 현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⁶⁾

Ⅲ. 正倉院 袈裟의 특징

오늘날의 袈裟는 일반 僧侶가 衣服 위에 걸치는 것으로써 주로 七條袈裟, 五條袈裟 또는 輪袈裟(접은 가사)를 가르킨다. 袈裟란 원래 印度에서는 佛敎徒(比丘·比丘尼)의 衣服이었다. 현재도 南方諸地域(인도·버마·태국·스리랑카·베트남 등)의 佛敎國의 僧侶는 古來의 전통대로 일상 의복으로 가사를 입고 있다. 그러나 佛敎를 받아들인 중국·서역지방·한국·일본 등은 기후풍토나 풍속 관습상 형태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도 寒暑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印度에서는 3枚의 가사로서 일년동안 충분히 생활하지만 중국·한국·일본 등은 한냉한 계절에는 당연히 이 가사 밑에 다른 옷을 몇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리하여 袈裟는 그러한 下衣 위에 착용되고 한편 장식화되고 본래 금지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화려한 것이 되기도 하였다.⁷⁾

따라서 가사에는 三衣와 條數가 있어 比丘가 몸에 걸치는 옷을 三衣라하여 ㉠ 安陀會 ㉡ 鬱多羅僧 ㉢ 僧伽梨 등이 있다. 즉 安陀會(antarvasaka)는 속옷의 의미가 있고 五條袈裟이며 한조는 一長一短의 구성이고 中宿衣나 雜作衣라고도 한다. 鬱多羅僧(Uttarasanga)은 겉옷(上衣)이고 七條인데 二長一短의 구성이다. 單衣·入衆衣라고도 한다. 僧伽梨(Sanghati)는 下品·中品·上品이 있어 下品은 9條~13條가사이고 二長一短의 구성이다. 中品은 15條~19條가사이며 三長一短의 구성으로서 複衣 또는 入王宮聚落時衣 그리고 聚落時衣라고도 한다. 上品은 21條~25條가사이고 四長一短의 구성이다.⁸⁾ 袈裟의 부분 名稱을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正倉院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九條刺納樹皮

2) 崔在錫,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1993, 第2部 1--4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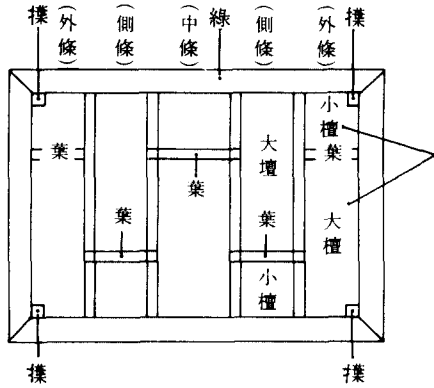
3) 한 예로 752년에 新羅로부터 구입한 물품만도 120종을 넘고 있다.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81.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1994.

4) 註 2의 책, pp.297--299.

5) 松島順正, 「獻物帳所載の御物と現存品について」, 『書陵部紀要』 7, 1956.

6) 앞의 註 참고.

7) 光森正士, 『新版 佛敎考古學講座』 第五卷 佛具, 雄山閣, 1984, p.132.



(註 8의 책, p.135에서)

〈그림 1〉袈裟의 部分名 (五條袈裟)

色袈裟 1령과 七條織成樹皮色袈裟 1령 그리고 七條刺納樹皮色袈裟 6령이 殘存한다고 한다. 이외에 漆皮箱子 2합·가사싸개(幘·보자기) 3條, 袈裟袋 2口가 전해진다. 이 袈裟들은 刺納樹皮色袈裟·織成樹皮色袈裟·褐色紬袈裟(분실된 것?)의 3 부류가 있다. 이 8령의 袈裟 이외에도 「珍寶帳」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소장되고 있다. 즉 木蘭染羅衣의 右肩 등 뒤에 羅衣의 재료와 동일한 천으로 53cm 四角의 袈裟가 부착되어 있는 袈裟付木蘭染羅衣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袈裟가 있다.⁹⁾ 이 袈裟는 차후에 조사 보고하기로 하고, 3개 부류의 袈裟와 袈裟싸개·袋·漆皮箱子 등의 형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刺納樹皮色袈裟

刺納樹皮色袈裟는 日本의 帝室博物館의 「正倉院御物圖錄」에 그의 10분지 1의 縮圖가 수록되어 있다.¹⁰⁾ 碧綾裏皂絹線이라고 명기된 袈裟의 겉의 모양이다.

군데군데 결손되어 있는 부분을 新絹으로 보수하였다. 안감의 碧綾은 대부분 현존하여 가장자리(緣)는 전부 近年에 보수된 것이다. 九條는 한 쪽의 천을 九條 이은 것으로 條間에 가장자리와 동일한 천을 꼬매어 畦를 이루고 있다. 크기는 폭 252cm, 길이 147cm이고, 각 條는 각각 二長一短의 구성이다.

七條는 縱의 條數가 7개로 구성된 것이다. 刺納은 여러가지 색(靑·黃·綠·茶·紅 등)의 작은 천을 여러겹으로 겹쳐 극히 작은 바늘땀으로 刺縫한 것으로서 천의 자름새나 겹침방법에 따라 문양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¹¹⁾ 「색천은 6·7매가 겹쳐있어서 색도 형도 다른 천이 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上層이 달아서 해지면 그 下層의 색이 나타나 게 된다. 또 수실로 꼬맨 곳은 천이 해지지 않고 남는다. 그 결과 層層參差靑黃淺深錯綜되어 문양을 안개처럼 색의 濃淡을 우련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¹²⁾고 正倉院御物圖錄 第1輯 13圖에 해설을 가하고 있다.

바늘땀의 크기도 놀라울 정도로 작아 재봉틀로 박은 것보다도 정교하여 기계로 박은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를 느끼게 한다. 1cm 평방당의 땀수는 큰 것이 5땀이고 작은 것은 11~12땀에 이른다(그림 2 참조). 그리고 본 袈裟의 실물과 꼭 같은 絹재 봉틀용실과, 길이 3cm의 9번바늘을 사용하여 실제로 刺縫한 결과 一領의 袈裟를 만드는데 실로 138日 즉 4·5個月余의 日數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袈裟를 수놓는 경우 佛像을 조각하는 佛師의 부처에 대한 경건함을 손끝에 모아 전혀 神技에 가까운 技法을 가지고 제작하였다는 것이다.¹³⁾ 우리나라의 14~17세기의 정교(0.3~0.6cm의 누비간격)한 누비 옷을 누비는 기법을¹⁴⁾ 상기하게 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8) 앞의 책 p.135 참고.

9) 町野とく, 正倉院寶物袈裟付羅衣について (1), 『被服文化』 61, 1935.

———, 正倉院寶物袈裟付羅衣について (2), 『被服文化』 62, 1936.

10) 『正倉院御物圖錄』 第一輯 帝室博物館, 1928.

11) 1977년, 『正倉院目錄』 #20-1, 奈良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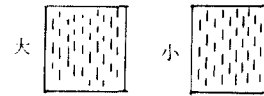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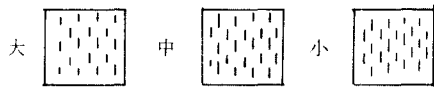
12) 『正倉院御物圖*』 第1輯, 帝室博物館, 第十三圖, 1928.

13) 町野とく, “刺納樹皮色袈裟の縫に就いて”, 『大和文化研究』 1-1, 1953.

14) 『韓國服飾』 第八號, 檀國大學校,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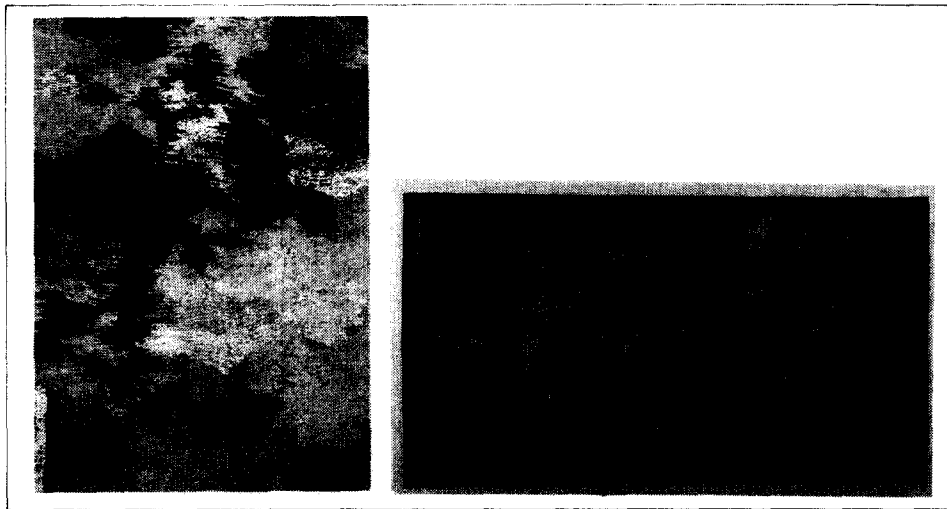
땀크기	땀수	줄수	겉땀크기	안땀크기
大	5	7	0.1強	0.3
中	5 強	8	0.1	0.25
小	7	9	0.05~ 0.07	0.2~ 0.25

땀크기	땀수	줄수
大	10	12
小	11~12	13~14



(출처 註 13)

〈그림 2〉七條刺納樹皮色袈裟의 땀수



(1987년 正倉院展 #15)

〈그림 3〉七條刺納樹皮色袈裟와 이의 擴大圖

樹皮色이란 여러가지 천을 樹皮를 染料로 염색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색 또는 알록달록한 색을 의미한다. 『正倉院御物圖錄』 第一

輯 第六圖에는 「樹皮色에 대하여는 魏譯名義集에 『木蘭即樹皮也』라고 있고, 木蘭色即黃赤紅의 雜色으로 생각되나, 이것을 本 그림의 御物이나 刺納袈裟

에 비유하면 아마도 雜色の 점(斑)이 있어 單色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크기를 보면 길이가 149.0cm 폭이 238.0cm의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길이 147cm 폭 267.0cm의 크기의 것이 있다.

2) 七條織成樹皮色袈裟

이 袈裟는 天皇 聖武의 遺愛品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 1급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袈裟는 縱에 만들어진 條數에 의하여 불리고 5條로 시작되어 7條·9條 등 奇數이고 25條까지 있다. 織成袈裟란 綴錦의 하나로 緯絲는 茶色, 地緯는 淺縹色, 色緯는 紺·綠·黃·白·茶·赤 등의 色絲를 사용하여 알록달록한 문양을 짜넣은 것이다. 색은 樹皮色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나 단지 이 樹皮色을 직접 織成한 것이 특징이다.¹⁵⁾ 752년에도 일본이 신라로부터 각종 염료·안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¹⁶⁾ 다양한 색채의 가사를 일본에서 제작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마쓰모토(松本包夫)씨는 正倉院에 소장되고 있는 「七條織成樹皮色袈裟」는 綴織의 變種인 異例의 大作이라고 말하고 織嵌式의 諸色の 色緯로 불규칙한 松皮風 문양을 나타낸 樹皮色의 平組織의 積層로써 이 점은 보통의 綴織과 다름없으나 신기한 것은 色緯가 한울건너씩 幅 전체에 관통하는 地緯가 통과하고 있는 일이다(그림 4 참조). 이와같이 地緯를 併用한 綴織은 이 袈裟 이외에 日本은 물론 中國 기타의 각지에도 유례를 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⁷⁾

다른 한편에서는 크기는 길이 245.5cm, 폭 139cm인데 經絲는 茶色이고 緯絲는 紺·綠·黃·赤 등의 色絲를 각각 2色씩 조합하여 한울로 하고 綴織技法으로 짜넣어 불규칙한 나무살風 문양인 樹皮色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림판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이 천은 上記의 2色 1組의 色緯 사이에 한울 건

너 織幅 가늠히 통과한 물색의 잔 地緯가 문양과 관계없이 짜넣어져 있다. 綴織의 약점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또한 經絲나 紋緯의 색과 혼합되어 布面의 顯色을 한 층 미묘하게 하고 있다. 부인하여 日本 京都의 教王護國寺(東寺) 소장의 空海請來 毘陀殼絲袈裟는 역시 綴織으로 本圖와 같은 地緯가 누비질공으로 일정간격으로 표면에 나타나 있고, 本圖의 略式·變形으로 보인다. 綴織의 異形으로 고찰되었던 技法일 것이다. 한편 「織成」은 「織」과 同義語로 綴織의 古稱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本圖의 袈裟가 「渡來品」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안감은 唐花紋의 紺綾을 사용하고 緣은 白綾이었으나 지금의 것은 새로이 보수된 것이다. 겉의 천과 천의 이음 솔기를 싸솔로 한 것을 堤라고 하나, 그 紺綾과 袈裟를 묶에 걸친 때에 사용되는 끈목(組紐)의 매듭(花結)의 발동이 조금이나마 당초대로 傳存하고 있다. 다른 8領의 袈裟와 함께 天平시대의 僧衣의 실물이 傳存하는 것의 귀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¹⁹⁾

3) 七條褐色紬袈裟

폭 297cm, 길이 143cm 크기의 袈裟이다. 表裏 모두 汚染 損傷이 없이 잘 보존된 袈裟이다. 이 袈裟의 천은 菱紋의 羅로 보인다. 겉도 안도 縱橫의 畦도 赤褐色의 同一한 천이다. 이것이 「獸物帳」에 기재된 「紬」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臆測이 있으나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²⁰⁾

各條의 長方形의 천(壇이라고도 함)은 2長 1短으로 2枚의 긴 천과 1枚의 짧은 천으로 되어 있다. 이 袈裟는 刺納이나 織成袈裟처럼 두겹지 않고 얇은 羅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夏節用の 袈裟로 보인다. 條·葉은 중앙의 條(4條 짜)에서 左右에 또 上

15) 1985년 『正倉院展』, #1, 奈良博物館,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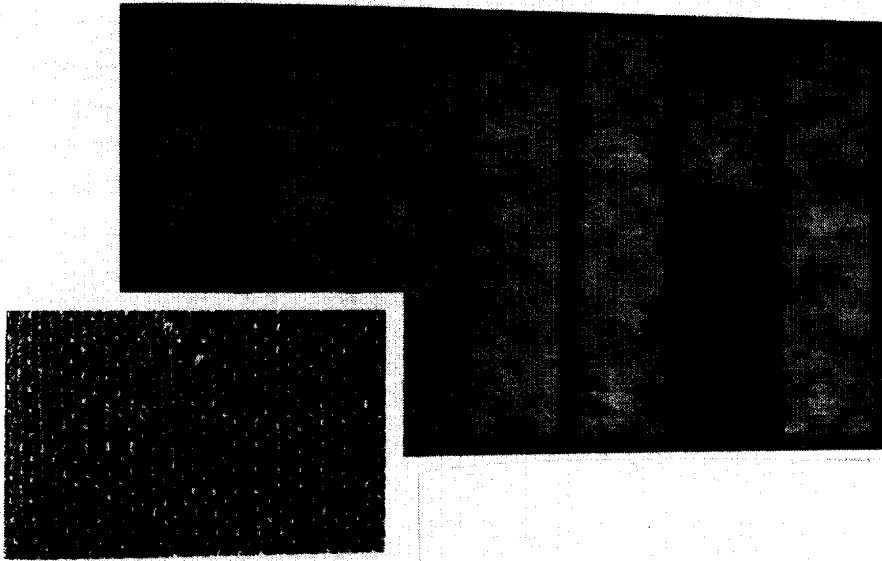
16) 註 3 참조.

17) 松本包夫, 正倉院の錦, 『日本の美術』 10, No.293, 1990, p.30.

18)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紫紅社, 1984, p.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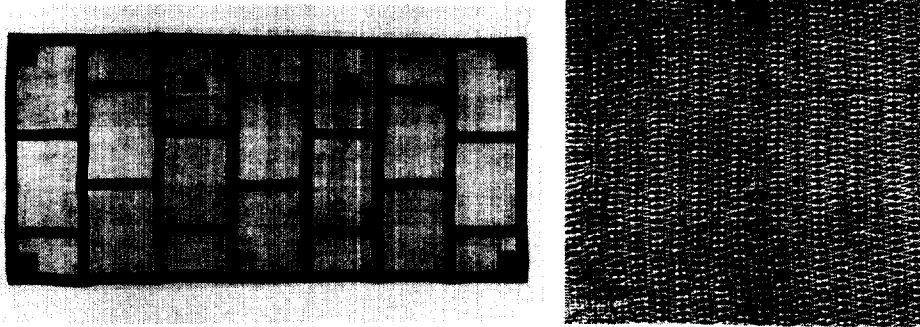
19) 註 13 참조.

20) 註 10의 책 제 3圖의 설명.



(註 17의 #33, #34)

〈그림 4〉 七條織成樹皮色袈裟



(袈裟는 1983년『正倉院展』 #15)

(組織圖는 註10의 제3도)

〈그림 5〉 七條褐色袖袈裟와 천의 조직

下로 쏠리는 모양으로 꼬맨 것이나, 이것도 그 制度를 따라 四天牒·肩牒 등도 남아 있다.

4) 보자기(幞)·자루(袋)·漆皮箱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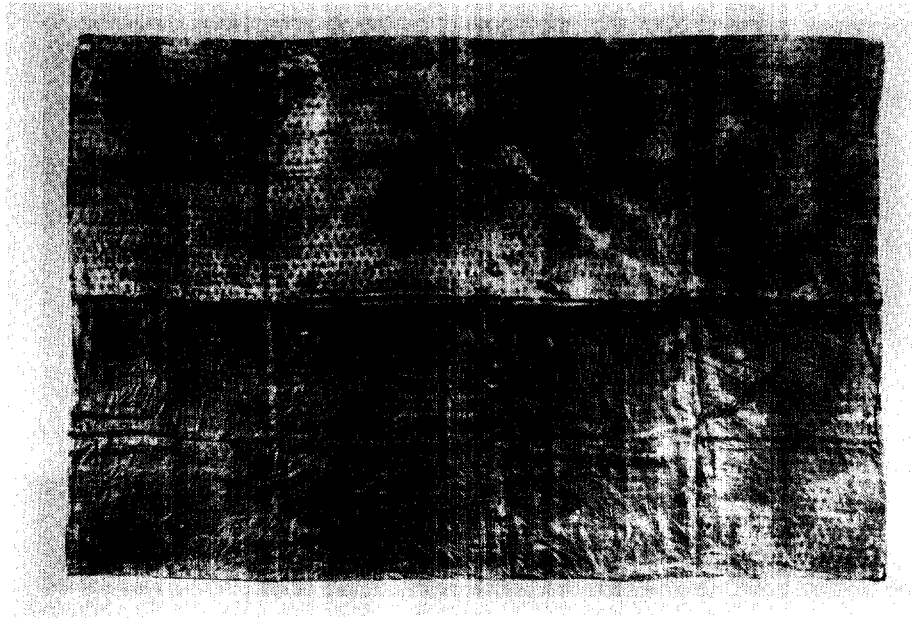
A. 御袈裟幞袷(袈裟 싸개)

袈裟를 싸는 겹보자기로서 길이 156.0cm, 폭 108.0cm 크기의 것이다. 즉 『珍寶帳』의 9령의 袈裟는 三領씩 합하여 碧綾의 보자기(幞)로 싸고, 하나

씩 綠蠟纈 자루(袋)에 넣고 위의 모두를 자물쇠(錠前-정전) 달린 漆櫃에 보관하였다. 이와같이 袈裟를 쓴 보자기는 선명한 碧色の 綾을 表裏 각각 2巾씩 縫合하여 長方形의 겹으로 만들고 綾의 문양은 작은 花菱紋이다. 菱形的 小花紋은 全面에 지그재그로 나타낸 것으로 幾何學的인 배치를 한 것이 특이하다.²¹⁾

布製 2枚 배접한 끈을 돌려 바르고 그 위에 전체에 흑칠을 칠하고 최후에 다시 흑칠(수분을 빼내어 흑갈색으로 변한 生漆)로 끝맺음을 하였다.²²⁾

전체의 모양이 漆皮箱子 특유의 안으로의 휘어짐(內反)이 있는 변형된 형상이나 몸체에 蜘蛛手形의 斷文이 보이지만 形도 바르고 漆法도 뛰어나다. 형



(1991년 『正倉院展』 #2)

〈그림 6〉 가사싸개(袈裟褌)

B. 袈裟箱子(漆皮箱子)

縱 46.0cm 橫 40.3cm 높이 11.5cm(다른 하나는 縱 44.5cm 橫 38.6cm 높이 11.1cm) 크기인 漆皮製 상자이다. 칠피상자는 흑칠을 한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일본은 당시 이러한 칠피상자를 만들수 없었다.²³⁾ 뚜껑의 굽이 밑상자의 깊이만큼 깊게 만든 상자이다. 몸체도 뚜껑도 한개의 가죽으로 整形하고 그 全面에 칠을 바르고, 뚜껑과 몸체의 口緣部에는 거친

이 비교적 정돈되어 있는 것은 素地に 두꺼운 素皮를 사용한 때문인 듯하다.²⁴⁾

C. 袈裟箱子자루(袈裟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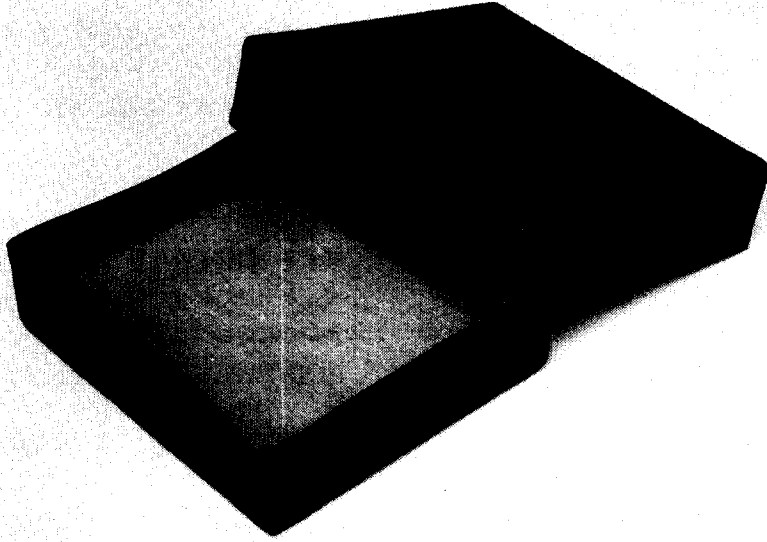
縱145.0cm 橫115.0cm 크기인 漆皮袈裟箱子를 넣는 자루(袋)이다. 원래 3枚 중 1枚가 분실되고 현재 2枚가 殘存한다. 길은 綠地에 白의 花紋과 霞의 비스듬한 엇갈림무늬이고 그 內側에 黃色의 鳥形과 魚形

21) 1991년 『正倉院展』 #2, 奈良博物館, p.13. 1977년 『正倉院目錄』 #20--2, 奈良博物館, p.38.

22) 崔在錫, 『日本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近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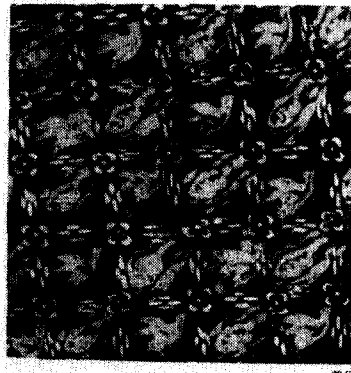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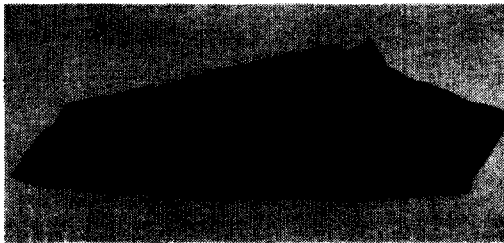
23) 1977년 『正倉院目錄』 #20--3, 奈良博物館, p.39.

24) 1983년 『正倉院展』 #15--2, 奈良博物館, p.45.



(1991년 『正倉院展』 #3)

〈그림 7〉 袈裟箱子



部分

(1991년전 『正倉院展』 #4)

〈그림 8〉 袈裟箱子의 자루

을 염색하고 있다. 안은 淺綠地의 絹을 사용하여 겹보자기로 만들고, 다시 그 두 모퉁이를 마주 접어 縫合하였으며, 양쪽 트임이 있는 筒形으로 만들었다. 蠟燭의 技法은 押型하여, 그 순서는 사선의 체크문양(釋紋樣)의 부분을 우선 蠟押하여 黃色염색을 한

후, 鳥形과 魚形을 蠟押하여 藍染하고, 문양을 白과 黃과 綠의 3色으로 나누어 염색(染分)하였다. 새·물고기 문양은 당시 상당히 좋아했던 것같고, 寶庫에는 이와 同一 意匠의 물품이 많이 보인다.²⁵⁾

25) 1977년, 『正倉院目錄』, #20--4, 奈良博物館, p.39.

IV. 正倉院 袈裟의 製作國

正倉院의 다른 물품과는 달리 正倉院 袈裟에는 새·구름·용·사자·꽃 등의 문양이 織造된 織物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양의 특성을 비교하는 측면에서의 제작국 확인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新羅佛敎와 奈良佛敎의 관계, 日本이 新羅 袈裟의 구입사실, 日本에서의 新羅 물품에 대한 명칭과 용도의 세가지 측면에서 9領의 袈裟의 제작국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新羅佛敎와 奈良佛敎의 관계

日本 奈良佛敎는 唐나라 유학을 미치고 불교 보급차 일본에 간 統一新羅의 僧 審祥의²⁶⁾ 日本 지역의 布敎에서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審祥의 說法에 心醉한 日王 聖武는 日本 東大寺의 大佛 건립을 發願하게 되었다. 즉 東大寺의 本尊佛인 盧舍那佛의 조립은 천황 聖武의 발원에 호응한 것이며 盧舍那佛 조립의 敎理는 新羅에서 도입한 새로운 학문인 義湘大師의 華嚴宗에 의거하고 있었다. 671년 10월 日本의 조정에서의 百佛의 開眼式도 新羅 사절을 초청하고 行해졌지만 그로부터 80여년후인 752년의 東大寺의 盧舍那佛의 開眼式도 新羅 사신을 초청하여 點眼式을 행하였다.²⁷⁾

奈良佛敎가 주로 佛經에 관한 23人 이상의 新羅 學僧의 해석(註釋)을 사경함으로서²⁸⁾ 시작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천황 聖武가 東大寺 盧舍那佛을 창건하고 日本 국민에게 新羅에서 도입한 華嚴宗의 信者가 되라고 유시한 것이나, 新羅에 留學한 日本 승려들로 하여금 華嚴宗의 敎理를 강설하게 함과 동시에 東大寺를 위시한 奈良의 佛敎界를 지도하게 한 것 등도 奈良佛敎와 신라불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면일 것이다.

奈良 일본은 비단 華嚴宗이라는 敎理뿐만 아니라

일체의 佛具 例를 들면 거울·屏風·香爐·燭臺·밥그릇·대접·술가락·젓가락·幡·각종 香料까지도 新羅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²⁹⁾ 따라서 奈良불교의 敎理나 制度나 각종 물품도 新羅 것을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新羅 袈裟의 구입

日本은 新羅의 袈裟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하여 日本의 寺刹의 부처에 獻進한 기록이 『日本書紀』에 나타나 있다.

① 671(文武 11·天智 10년)

9월 天皇이 병에 걸렸다.

10월 7일 新羅가 沙滄(사창) 金万物 등을 파견해 왔다.

10월 8일 內裏에서 百佛의 開眼會를 행하였다.

10월 이달 天皇이 使人을 보내 袈裟·金鉢·象牙·沈水香·栴檀香(진단향) 및 여러가지 '珍財'를 法興寺의 부처에 바쳤다.

10월 17일 新羅使 沙滄 金万物 등이 귀국했다.

② 681(神文 元·天武 10년)

10월 20일 新羅가 沙喙(사육)-吉滄 金忠平·大奈末 金一世를 파견하였다. 金·銀·銅·鐵·錦·絹·鹿皮·細布類 상당수, 별도 天皇·王后·太子의 몫으로 金·銀·霞錦·幡·皮物 등 상당수 구입하였다.

682(同 2, 同 11년)

2월 12일 新羅使 金忠平이 귀국하였다.

③ 687(神文 7, 持統 元年)

9월 23일 新羅가 王子 金霜林 級滄 金薩慕 및 級滄 金仁述, 大舍 蘇陽信 등을 보내 國政을 지도하였다.(請國政)

687(同上)

12월 10일 直廣參 路真人迹兒을 新羅人을 향응하는 勅使로 임명하였다.

26) 日本 學者들은 審祥을 日本의 僧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本朝高僧傳」에는 명백히 新羅人 審祥이 唐나라 유학을 마치고 日本에 布敎차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7) 崔在錫, 日本 正倉院 소장품 제작국 확인의 一次的 視角, 『韓國學報』 73, 1993.

28) 石田茂作,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敎の研究』 東洋文庫, 1930년에서 필자가 정리한 것임.

29) 崔在錫, 『日本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近刊).

688(神文 8, 持統 2년)

2월 10일 金霜林 등을 筑紫館에서 향응하였다.

2월 27일 金·銀·絹·布·皮·銅·鐵類 10여종 및
따로 佛像·여러 彩絹·鳥·馬 등 10여종,
별도로 金·銀·彩色 등 여러가지 '珍異物'
80여 종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2월 29일 新
羅使 金霜林 등이 귀국하였다.

위 史料 ①은 新羅 使人이 日本에 초청되어 日本
王宮(內裏)의 百佛의 開眼式을 주도하였으며, 新羅
사인들이 가져온 袈裟·金鉢·象牙·沈水香·栴檀·
香 등을 구입하여 法興寺에 헌납하여 天皇의 病이
회복되기를 기원하였다는 기록이다.

史料 ②는 幡·金·銀 등 많은 新羅의 물품을 구
입한 기사이고, 史料 ③은 佛像·彩絹 등 많은 新羅
물품을 구입한 記錄이다.

日本이 新羅 袈裟를 구입한 기록은 671년 한번만
이 보이나, 678년과 681년에 각각 10여종, 685년과
687년에 각각 160여종과 100여종의 新羅 물품을 日
本에 간 新羅 使臣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이 『日本書
紀』에 기록되어 있다.

8世紀에 여러번(11회) 新羅 使人들이 日本의 國政
指導(顧國政)와 물품 판매를 위하여 日本에 파견되
었으나 『續日本紀』는 使臣 파견은 기록하고 있으나
『日本書紀』와는 달리 新羅 使人으로부터 물품을 구
입한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
이도 752년에는 그해에 日本에 간 新羅 使人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문서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日本
은 752년에도 120종 이상의 新羅 물품을 구입하였음
을 알게 된다.³⁰⁾

또한 768년에는 日本이 新羅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70,000斤의 綿을 준비한 사실을 『續日本紀』
에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日本 史書는 단 한 예의 新羅 袈裟를 구입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日本은 新羅 使人이 日本에
갈 때마다 수많은 종류의 新羅 물품을 구입하였으
며, 그 수많은 新羅 물품 속에는 앞의 史料 ①과 ②

에서처럼 袈裟·幡 등의 佛具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3) 新羅 물품의 명칭과 용도

9世紀의 袈裟 등이 기재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珍
寶帳」 또는 「國家珍寶帳」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日
本은 新羅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어떤 명칭을
부여하여 그러한 新羅 물품을 日本 특히 日本王室에
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日本에서는 新羅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珍財」·
「珍異物」·「珍物」·「珍寶」 등의 네가지 명칭으로 부
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
칭이 「珍寶」이다. 「진보」는 이른바 「國家珍寶帳」이
외에 685년과 686년에도 각각 일본에 간 신라 사인
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珍寶라고 불렀다. 다음에 新
羅 물건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를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³¹⁾

珍寶

685년 (683년 11월 新羅 使人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686년 (685년 11월 新羅 使人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754년 (國家珍寶帳)

珍財

671년 (670년 10월 新羅 使人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珍異物

688년 (687년 9월 新羅 使人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珍物 700년 (700년 5월 新羅에서 구입한 물건)

新羅에서 구입한 물건은 주로 王室에서 사용되었
겠지만 이 밖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新羅로부터 구입한 물건은
㉔ 천황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佛寺에 헌
상하고, ㉕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佛寺·神宮
에 헌상하는 경우, ㉖ 천황의 死後의 명복을 기원하
기 위하여 佛寺에 헌상하는 경우 등 세가지 목적을

30) 註 3 참조.

31) 崔在錫, 日本 東大寺 「獻物帳」을 통해본 正倉院 소장품의 製作國, 『韓國學報』75, 1994.

위하여 사용하였다.³²⁾

천황 天武가 新羅 僧 審祥의 說法을 듣고 新羅의 華嚴宗 教理에 心醉하여 東大寺를 지었고, 천황 聖武의 필생의 사업인 東大寺 大佛을 완성하여 開眼式을 거행한지 4년 후인 756년(天平勝寶 8) 5월 2일에 聖武가 別世하고 49齋인 6월 21일에 왕후 光明(당시는 王太后)은 新羅에서 구입한 물건이며 남편인 聖武의 각종 愛用物(翫好·완호)을 東大寺의 本尊 盧舍那佛(大佛)에 헌납하여 남편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록부가 「國家珍寶帳」인데 이 「國家珍寶帳」이라는 명칭은 그 기록부의 서두와 願文 속에 기록되어 있는 「拾國家珍寶」라는 명칭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시각에서 보아도 9領의 袈裟 등이 들어 있는 「國家珍寶帳」기재의 물품이 新羅製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統一新羅 시대에 日本이 천왕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나, 日本의 國泰民安을 위해서나, 또는 천왕의 死後의 명복을 위하여 佛事に 바친 물건은 모두 新羅의 물품 즉 新羅에서 구입한 물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통일신라는 여러가지 색채의 다양한 염료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염직물 뿐만 아니라 색채 자체를 제작할 수 없었다.³³⁾ 이러한 점에서 袈裟는 日本에서 제작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말

「珍寶帳」기재의 袈裟와 현존 袈裟에 대하여 문헌 기록을 통한 소개와, 현존 袈裟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 본 다음 그러한 袈裟의 제작국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紋樣의 同一性 등의 접근 방법에 따른 袈裟의 제작국 확인은 어려웠으나 新羅 佛教와 奈良 佛教의 관계, 일본이 新羅 袈裟를 구입한 사실, 袈裟를 포함한 新羅 물품에 대한 명칭(珍寶)의 시각에서 보아서는 正倉院의 袈裟는 正倉院의 다른 소장품과 마찬가지로

지로 新羅에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袈裟를 염색한 다양한 색채나 袈裟를 넣은 漆皮箱子의 제작기법에서 유추해 볼 때도 正倉院 袈裟는 당시 日本에서 제작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參考文獻】

- 1)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81.
- 2) 町野とく, “刺納樹皮色袈裟の縫に就いて”, 『大和文化研究』 1-1, 1953.
- 3) 町野とく, “正倉院寶物袈裟付羅衣について” (1), 『被服文化』 61, 1935.
——, “正倉院寶物袈裟付羅衣について” (2), 『被服文化』 62, 1936.
- 4) 松島順正, “獻物帳所藏の御物と現存品について”, 『書陵部紀要』 7, 1956.
- 5) 光森正士, 僧具, 『新版 佛教考古學講座 第五卷 佛具』 1984.
- 6) 松本包夫, 正倉院の錦, 『日本の美術』 10, No.293, 1990.
- 7)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1994.
- 8) 井筒雅風, 『袈裟史』, 雄山閣, 1982.
- 9)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韓國服飾』 第八號, 檀國大學校, 1990.
- 10) 石田茂作,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 東洋文庫, 1930.
- 11) 『正倉院御物圖錄』 第一輯, 帝室博物館, 1928.
- 12) 李春桂,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染織과 그 製作國”, 『東國論叢』 33, 1994.
- 13) 崔在錫,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1993.
——, “日本 正倉院 소장품 제작국 확인의 一次的 視角”, 『韓國學報』 73, 1993.
——, “日本東大寺「獻物帳」을 통해본 正倉院

32) 앞의註 참조.

33) 李春桂,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染織과 그 製作國”, 『東國論叢』 33, 東國大學校 論文集, 1994.

- 소장품의 製作國“『韓國學報』75, 1994.
——, 『日本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一志社, 1995, (近刊).
- 14) 1977년 『正倉院目錄』 #20--2, 奈良博物館.
15) 1983년 『正倉院展』 #15--2, 奈良博物館.
16) 1985년 『正倉院展』 #1, 奈良博物館.
17) 1987년 『正倉院展』 #15, 奈良博物館.
18) 1991년 『正倉院展』 #2, 奈良博物館.
19) 「國家珍寶帳」.